



김학용 단장

‘잘 먹고 잘 사는(Well-being)’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웰빙은 단순히 건강 지키기가 아닌 자기관리의 한 기준이 되었다. 전북대학교의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김학용 단장은 헬스케어 사업은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이라 설명했다. 헬스케어 사업단을 이끌며 다양한 연구업적과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전북대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의 김학용 단장과 이야기해 보자.

정진우 기자

기업과의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의 최대치를 꾀한다.

‘전북대 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김학용 단장은 생체분해성복합사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 나노섬유 부직포 양산화 기술을 개발한 인재다. 한국 이공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 단장은 특허 135건, 주요 발명자 랭킹 국내 3위, 이 밖에도 SCI논문 104편, 국내논문 46편, 저서 4건 등의 업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전북 경제를 이끌 핵심 전략사업인 ‘전북대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은 차세대 성장기술인 IT, BT, NT를 결합한 산융합기술을 기본으로 고품화 사회 도래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웰빙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21세기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 헬스케어 기술사업을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 단장은 처음 사업단을 이끌게 된 동기로 청년실업문제와 지역 발전을 들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수익창출의

## 헬스케어 메카로 다시 태어나는 전북

‘전북대 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 김학용 단장

최대화를 통한 사업의 한 축이며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고  
급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축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 산학이 만난 최첨단 헬스케어사업

사업단의 대표적 성과물로 우석대 약학과의 황금나노피아가 있다. 삼익제약(주)과 공동 연구한 이 제품은 2008년 1월부터 약국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다. ‘황금나노피아’는 피부친화성이 높고 피부 흡수 속도가 빠르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노화 및 손상된 피부의 회복기간 단축 효과 등 많은 장점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북대학교 섬유소재시스템공학과와 ‘헬스케어용 나노섬유 양산화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35건 특허 출원 및 19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 기술은 가치평가전문기관인 (주)P&IB로부터 최소 223억 원에서 최대 315억 원의 가치를 평가 받아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사업단은 이 특허 판매를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여 명의 참여 인력이 지난 1년 간 시제품 개발 9건, 기술이전 1건, 특허출원 29건, 특허등록 36건, PCT출원 9건 등의 연구실적을 가지적 성과로 보여주었다.

헬스케어 기술은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성장 사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한국 최고의 기술력과 다양한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신 성장동력으로 그 위상을 높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사업단의 최종목표는 연간 3천억의 수익과 1천200명의 고용창출, 특히 청년실업시대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등 연대강화, 국제논문 목표치 부여 등을 통해 수익창출과 학생들의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전북대 김학용 단장은 공학과 의학, 약학이 융합된 최첨단 기술의 성과물인 헬스케어분야를 선점, 산학협력을 통해 전북을 헬스케어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BM**